https://doi.org/10.5392/JKCA.2017.17.05.056

나눔 경험과 기부의도: 신뢰 및 긍정 태도의 매개효과 연구

Philanthropic Experience and Giving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the Trust and Positive Attitude towards NGOs

이선호*, 박우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Seonho Lee(serenish@khu.ac.kr)*, Woosung Park(pwoosung@kh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이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이 어떤 경로를 거쳐 기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은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및 긍정 태도는 어린 시절 나눔 경험과 기부의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영리단체 특성요인을 거치는 간접효과에 비해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이 기부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부 행위에 있어 어린 시절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이 확인되었다는 점과 나눔 경험이 기부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나눔 경험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매개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동시에 제공한다.

■ 중심어 : | 나눔 경험 | 비영리단체 신뢰 | 비영리단체 태도 | 기부의도 | 이중매개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philanthropic experience on the giving intention. There are many precedent studies arguing this influence but the empirical results are mixed or sometimes contradictory. We stipulate that this could be resolved by introducing the mediating variables such as trust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s NGOs.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189 person living in Seoul area show that philanthropic experience directly influence the giving intention, and it exert an influence on the giving intention directly through the trust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s NGOs. And it is shown that the indirect effect produced by the mediating variables and process in less than the direct effect.

Results support precedent studies emphasizing the important role of the philanthropic experience in the giving intention, and shed light on the process through which philanthropic experience determines the giving intention. A practical implication might be that we have to do a great effort to experience philanthropic activities in one's early age, and a theoretical implication be that researchers need to pay attention to find another mediating variables having explanatory power.

■ keyword : | Philanthropic Experience | Giving Intention | Dual Mediation | Trust towards NGOs | Positive Attitudes towards NGOs |

접수일자 : 2017년 01월 12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26일
교신저자 : 박우성, e-mail : pwoosung@khu.ac.kr

I. 서 론

비영리단체는 오늘날 정부 및 기업 부문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각 영역에서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 한편 복지자원의 제공에 있어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및 일반 국민의 낮은 참여로 인한 만성적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의존도를 보인다[2]. 이러한 현실은 민간 복지전달체계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불러와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복지부문의 재정자립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2][3].

이러한 상황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자원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에게 재정자립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모금 활동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4]. 그리고 그러한 전략은 개인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장기적 시각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기부를 장려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동기적 접근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5].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부의도의 선행 요인들을 규명하여 개인 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어린 시절의 나눔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기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한다[6-9]. 기부 행동에 대해 어린 시절 경험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 기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나눔경험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은 개인 기부의 선행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비영리단체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혼재된 결과다. 일부 연구들은 개인 기부자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기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10][11] 다른 연구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태도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몰입과 같은 변수를 통해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5][7][11].

본 연구는 어린 시절 경험의 기부 의도 형성,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및 긍정 태도의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신뢰와 기부 간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나눔에 대한 경험과 기부 의도

기부자의 과거 경험은 기부 행동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 기부 활성화 연구에서 관심을 받는 주제에 속한다. 개인의 특정한 경험은 기부 행위를 할 가능성과 기부 행위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4].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요인으로서 어린 시절의 나눔 경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나눔경험은 성인기 이후의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시절에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의미하며 기부 행동,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 모금 등 본인의 참여를 통한 직접 경험과 부모나 친척, 이웃의 나눔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한 간접 경험,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나눔 교육 등을 포함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와 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들의 자발적 나눔 활동을 모방하고 따르며, 그러한 활동에 몰입할 기회가 주어질수록 나눔에 대한 가치,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된다[8].

최근 이전 세대의 기부 활동 및 교육 등이 다음 세대의 기부 행동을 예측하는 이른바 기부의 세대 전승 효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13]. 먼저 이전 세대의 기부 활동에 대한 연구로 Bekkers[9]는 네덜란드의 기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봉사활동 실천 기억을 가질수록, 그리고 스스로 봉사활동 및 기부 경험을 가질수록 향후 본인이 실천하는 봉사 및 기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가정에서 실천하는 자선적 활동이 성장 후 자녀의 기부 행동 원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과거의 기부 행위와 그에 대해 만족한 경험은 긍정적인 재인식을 거쳐 향후의 기부 동기로 작용하며 기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4]. 또한 부모에 대한 모델링 효과[8]과 같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봉사 행위를 보며 그로부터 부모가 얻는 내적 보상을 관찰한 아이들은 봉사 행위에 긍정 태도를 지니며 그러한 가치를 내재화한다[14]. 특정 가치에 대한 인식은 행동의 발현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실제로 어린 시절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나눔은 성인이 된 이후의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6]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혹은 직·간접 경험을 통한 나눔 가치의 체화는 자녀의 향후 기부 의도를 높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에 대한 긍정적 가치 형성과 관련하여 어린 시절 나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나눔 교육이 친사회적 행동의 형성 및 발달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5-17].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친사회 행동 형성 및 향상에 있어 아이의 교육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모와 학교의 역할이 강조된다. 기부 행위는 사회학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 친사회적 행동[16]에 속하고,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많은 실험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기부 행위와 나눔 행위를 중심으로 측정[18]하므로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치 습득은 곧 나눔 및 기부 행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1: 어린 시절의 나눔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기부 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신뢰와 긍정 태도의 매개효과

2.1 신뢰의 매개효과

상당 수 기존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나눔 관련 경험이 기부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비해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7]. 또한 기부 노력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나눔 교육 변수를 사용한 일부 연구에서는 나눔 교육과 자선적 기부 노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3]. 따라서 기부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눔 경험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기부 의도로 이어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기부자의 기부행동, 기부 지속 의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5][7][10][11].

신뢰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과 만족이 상호작용하며 발전된다는 점이다[19].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는 기부자의 인지와 감정, 행동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관련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진화할 수 있다[20]. 개인과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어린 시절의 다양한 나눔 경험을 통해 체화된 친사회적 가치는 그 대상을 개인이나 단체로 구분하여 특정 대상에게만 나타난다기보다는 나눔 활동에 인한 정서적 만족, 효용감으로 발현되어 그러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0]. 결과적으로 기부자가 비영리단체로부터 자신의 과거 나눔을 통해 받는 만족, 또는 단체와의 일체감[11]과 같은 정서적 효용(emotional utility)의 경험은 비영리단체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에 의한 효용감이 요구되며 특히, 주변의 영향을 받아 가치 체화, 인지 형성 등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나눔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그러한 효과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어린시절 나눔 경험은 친사회적 행동을 함양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13], 이러한 효과는 특히 성인보다 아동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9]. 즉,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을 통해 느끼는 특정 가치에 대한 인식 및 기부의 효용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

가설 2-1: 어린 시절의 나눔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2.2 긍정 태도의 매개효과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힌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기부 의도 간 정(+)의 관계가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강철희[21]은 자선적 기부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사회기관 신뢰와 기부 금액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했고, 강철희[13]은 신뢰 수준이 기부 및 자원봉사의 독립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관계도 가능하여 두 변수 사이에 양방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처럼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방법론[13][21]에 의해, 또는 나아가 그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6]. 한편 Sargeant and Lee[12]는 신뢰가 실제로 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 몰입 등을 통해 매개효과 역할을 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기부 의도로 직접 연결이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반된 주장이나 실증결과가 존재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개념에 근거하여 비영리단체 신뢰와 기부 의도 사이에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에 대해 가지는 긍정 태도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선호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의미한다[22].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어떤 자극을 자신의 경험, 가치관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한 후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13] 특정대상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으로 표현된다[22].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태도는 어떤 실천에 있어서 개인의 직접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일으키는 일종의 준비상태이며[24], 특정 가치에 의한 결과로서 파악할 수 있다[25].

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 지향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개인의 가치가 사회적 태도 및 행동에 대해 가지는 예측성을 주장한다[26]. 즉 개인이 갖는 가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들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27]. 개인이 보유한 가치 기준에 의해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한 태도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에 대해 가진 신뢰라는 가치는 해당 단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20].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인지과정을 고려하면[23] 신뢰는 나눔경험과 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 사이의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를 대상으로 개인 기부자의 기부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검증한 이원준[10]은 기부효용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개인 기부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며 그로써 개인에게 기부기관은 더 의미있고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됨을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신뢰가 높을수록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가 높아질 것이며, 또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는 나눔 경험이 긍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2-2: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는 어린 시절의 나눔 관련 경험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 간 정적인 관계에 대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태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태도가 특정 반응에 대한 성향을 의미하거나[22]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인식된다는 점[28]이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가치표현적(the value- expressive function) 기능을 수행하는 태도[29]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행동성향이며 개인의 선택적 반응을 이끈다[30]. 가령 특정 대상에 대한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지며,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이며[22] 따라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는 비영리단체와 그들이 수행하는 제반 사업 내용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처럼 태도는 개인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개인 인식의 관점에서 태도의 개념을 적용하면, 비영리단체가 실제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 이는 단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태도를 형성케 하며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기부의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태도 개념은 단순히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인식하는 것이나 혹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단체를 신뢰 하더라도 그들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 기부의도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긍정 태도의 형성에는 전술하였듯이 평가를 위해 특정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의 가치판단 기준이 요구되는데[23], 과거의 나눔 경험을 통해 형성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는 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가 발현되게 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기부 의도는 결국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의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긍정 태도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기부 의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4: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가 높을수록 기부 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5: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기부 의도 간 정적인 관계에 대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6: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는 어린 시절 나눔 경험과 기부 의도를 이중매개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표집 방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0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 중 기록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여겨지는 11부를 제외하고 총 189명의 응답자로부터 얻은 자료에 기초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80명(42.3%), 여성 109명(57.7%)으로 상대적으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연령은 20대가 91명(48.1%)으로 전체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20대로 구성되어있다. 종교는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81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신교(38.1%),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천주교(8.5%)와 불교(8.5%), 기타(2.1%)로 구성되어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33.9%), 재학(29.1%)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월 가구 소득은 200만 원 대(29.9%), 100만 원 대(17.6%), 400만 원 대(16.1%), 300만 원 대(14.0%)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성별	남	80	42.3
	여	109	57.7
연령	20 ~ 29세	91	48.1
	30 ~ 39세	25	13.2
	40 ~ 49세	32	16.9
	50 ~ 59세	36	19.1
	60세 이상	5	2.7
종교	개신교	72	38.1
	천주교	16	8.5
	불교	16	8.5
	없음	81	42.9
	기타	4	2.1
학력	고등학교 졸업	47	24.9
	대학교 재학	55	29.1
	대학교 졸업	64	33.9
	대학원 재학	14	7.4
	대학원 졸업	9	4.8
월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7	3.8
	100 ~ 199만 원	34	18.5
	200 ~ 299만 원	55	29.9
	300 ~ 399만 원	26	14.1
	400 ~ 499만 원	29	15.8
	500 ~ 599만 원	21	11.4
	600만 원 이상	12	6.5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나눔 경험, 매개변수로 비영리단체 신뢰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 그리고 종속변수로 기부 의도 총 4가지 변수를 사용

하였다. 경험 여부를 측정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한 나눔 경험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1 나눔경험

나눔 경험은 어린 시절에 받은 나눔에 대한 교육이나 나눔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향후 기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6][32]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기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33]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어린 시절 본인의 기부나 봉사 경험, 부모의 기부나 봉사 경험을 관찰한 경험, 부모나 기관으로부터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묻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2]에 제시된 경험 항목을 물어서 해당 경험 유무(없다=0/있다=1)를 토대로 이를 지수화하여 통계 분석에 포함하였다[6].

2.2 비영리단체 신뢰

기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여러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는 기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인식된다. Sargeant and Jay[11]가 비영리단체의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비영리단체 직원 정직성, 적절한 모금 사용, 정당한 모금 절차, 투명한 사용 내역 등 4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비영리단체 긍정 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는 Sargeant and Lee[35]가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하는지, 사업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4 기부 의도

종속 변수로 기부 금액이나 행위 대신 기부 의도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나 상황 때문에 현재 기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부 의도가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 향후 기부 행위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를 촉진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관점에서는 현재 나타나는 기부 행위보다 오히려 기부 의도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측정은 Fishbein and Ajzen[28]이 사용한 문항 중 정우정[34]이 NGO 기부의도 파악에 사용한 문항들로 정리한 3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나눔 경험과 비영리단체 신뢰, 비영리단체 긍정 태도, 기부 의도 등 주요 변수들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 연령, 종교, 학력, 현재 기부활동 참여 여부 등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연령이 기부행위와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36]을 바탕으로 연령을 측정하였고,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기부 성향이 높음을 보고한[37]에 따라 종교 유무를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개인의 교육수준과 기부행위의 관계 또한 기부금액[38]과 정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학력을 고졸 이하/대학(교)재학/대학(교)졸업/대학원 이상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설문지 구성)	연구자
나눔경험	개인에 기부 경험 여부	아름다운재단(2006)
	기관에 기부 경험 여부	
	개인에 자원봉사 경험 여부	
	단체에 자원봉사 경험 여부	
	부모로부터 나눔 교육 경험 여부	
	사회기관으로부터 나눔 교육 경험 여부	
	사회기관으로부터 자원봉사 교육 경험 여부	
	‘부모가 개인에 기부’ 경험 여부	
	‘부모가 개인에 자원봉사’ 경험 여부	
	‘부모가 단체에 기부’ 경험 여부	
	‘부모가 단체에 자원봉사’ 경험 여부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직원들의 정직함	Sargeant and Jay(2005)
	필요한 곳에 모금액 사용	
	정당한 모금 절차 준수	
	모금액의 투명한 사용 내역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	지역사회에 도움 인식	Sargeant and Lee(2002)
	성공적 사업 수행 인식	
	사업수행에 대한 호평 인식	
기부 의도	1년 이내 기부 의향	Fishbein and Ajen(1975) 정우정(2010)
	주기적 기부 의향	
	비영리단체의 필요에 의한 기부 의향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척도 문항 간 내적 일관성과 요인의 구성타당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이 기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영리단체 신뢰와 긍정 태도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변수가 순차적으로 존재할 때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Hayes et al.[36]이 제공하는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였다.

1. 신뢰타당도 및 상관관계

각 문항 간 신뢰도와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χ^2=568.308, df=261, p<.001, TLI=.900, CFI=.911, RMSEA=.059)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는 0.788에서 0.927사이로 확인되었으며, 개별 측정항목의 구성 타당성도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P
나눔경험	개인기부	0.313	1	–	–	–
	기관기부	0.367	1.269	0.438	2.89	***
	개인봉사	0.388	1.255	0.424	2.96	***
	단체봉사	0.260	0.720	0.346	2.08	**
	부모교육	0.397	1.440	0.504	2.86	***
	기관나눔교육	0.382	1.242	0.463	2.68	***
	기관봉사교육	0.396	1.250	0.458	2.73	***
	부모개인기부	0.681	3.181	0.890	3.57	***
	부모개인봉사	0.712	2.880	0.796	3.61	***
	부모단체기부	0.716	3.125	0.860	3.63	***
	부모단체봉사	0.745	3.762	1.040	3.62	***
비영리단체 신뢰	직원정직성	0.878	1	–	–	–
	모금액사용용도	0.909	3.181	0.058	18.00	***
	모금절차준수	0.917	3.219	0.057	18.10	***
	모금액사용내역	0.798	3.093	0.072	13.89	***
비영리단체 긍정태도	지역사회도움	0.805	1	–	–	–
	성공적사업수행	0.852	1.067	0.087	12.24	***
	사업수행평가	0.785	0.964	0.088	10.85	***
기부의도	1년내기부의향	0.788	1	–	–	–
	주기적기부의향	0.865	1.129	0.107	10.56	***
	수시기부의향	0.670	0.875	0.099	8.80	***

주: 예측변수 중 하나인 '나눔경험'은 인덱스로 측정이 되어있는 관계로 요인분석에 포함하지 않음(Cronbach's α = 0.788).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 상관관계 표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린 시절 나눔 경험과 비영리단체 신뢰[r=.331, p<.05], 어린 시절 나눔 경험과 비영리단체 긍정 태도[r=.256, p<.05], 어린 시절 나눔 경험과 기부 의도[r=.386, p<.05]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신뢰와 비영리단체 긍정 태도[r=.624, p<.05], 비영리단체 신뢰와 기부 의도[r=.234, p<.05], 비영리단체 긍정 태도와 기부 의도[r=.304, p<.05]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인 기부의도와 소득, 연령, 종교, 학력, 현재기부여부 등 통제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을 제외하고 대체로 기부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적절한 요인들을 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설 검정

어린 시절의 나눔 경험과 향후 기부 의도와의 관계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긍정 태도의 이중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yes et al.[36]에 의해 개발된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였다. PROCESS는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통합 모델의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방법은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및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기초하고 있어 모형 내 경로의 회귀계수 및 신뢰구간 추정이 가능하며 변수 간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등에 대한 통합적 검증이 가능하다. 둘째,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간접효과에 대한 개별 검증이 가능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매개효과 검증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37]. 또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추정치의 표본분포에 대한 별도의 가정 없이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샘플로도 충분히 이중매개 효과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변수들 간 직접효과와 단순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변수들을 거치는 이중매개효과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소득	1											
2. 연령	.107	1										
3. 종교	.051	.086	1									
4. 고졸	.088	.605**	−.050	1								
5. 대학재학	−.130	−.540**	−.165*	−.357**	1							
6. 대학졸업	−.015	.054	.142	−.415**	−.444**	1						
7. 대학원이상	.024	−.164*	.031	−.176*	−.189**	−.219**	1					
8. 현재기부여부	.243**	.054	.064	−.019	−.114	.120	−.032	1				
9. 나눔경험	.165*	.000	.263**	.017	−.053	−.021	.078	.254**	1			
10. 단체신뢰	.247**	−.055	.137	−.060	.106	−.065	−.020	.303**	.331**	1		
11. 단체긍정태도	.089	−.103	−.038	−.100	.151*	−.081	−.067	.202**	.256**	.624**	1	
12. 기부의도	.227**	−.175*	.150*	−.142	.029	.003	.084	.336**	.386**	.234**	.304**	1

표 5.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t	p	채택여부
1	나눔경험 → 기부의도	0.089	.314	.020	4.34	.000	O
2-1	나눔경험 → 단체신뢰	0.091	.308	.021	4.20	.000	O
2-2	단체신뢰 → 단체태도	0.523	.617	.054	9.65	.000	O
2-3	나눔경험 → 단체신뢰 → 단체태도	0.050	.311	.012	4.30	.000	O
2-4	단체태도 → 기부의도	0.294	.260	.095	3.12	.002	O
2-5	단체신뢰 → 단체태도 → 기부의도	0.161	.242	.056	2.90	.004	O

표 6. 변인들 간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Effect	SE	t	LLCI	ULCI
나눔경험→기부의도의 총효과	0.102***	.0199	5.152	.0632	.1416
나눔경험→기부의도의 직접효과	0.089***	.0206	4.337	.0486	.1298

간접효과	Effect	Boot	BootLLCI	BootULCI
나눔경험→단체신뢰→단체긍정태도→기부의도	.0141**	.0062	.0050	.0298

상 PROCESS를 활용한 검증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할 때 기존에 활용되어온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변인별 간접효과 분해 시 추가로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활용한 동치 모형을 설정하여 개별 간접효과를 검증해야하는 반면 Process를 활용 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변인별 간접효과의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37].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검증결과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이중매개를 제외한 경로를 분석하여 각 가설의 검증결과를 보고한 후, 이어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이중매개효과를 포함한 변인들 간 총효과 및 직·간접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모형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준화된 경로계수 크기로 비교하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가설2-2]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는 영향은 나눔경험의 기부의도 대한 효과[가설1], 그 다음으로는 나눔경험에서 비영리단체 신뢰를 거쳐 긍정 태도로 이어지는 효과[가설2-3]로 나타났다. 이외에 나눔경험이 비영리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가설2-1],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가 기부의도로 이어지는 영향[가설2-4], 비영리단체 신뢰가 비영리단체 긍정 태도를 거쳐 기부의도로 이어지는 영향[가설2-5]등의 순서로 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급된 6개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어린 시절 나눔 경험과 기부 의도의 관계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긍정 태도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어린시절 나눔경험과 기부의도의 관계에서 나눔경험은 기부의도에 대해 각각 직접효과(.0089)와 간접효과(.0141)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95% 신뢰 구

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추출하였다. 매개변인이 각각 포함된 모형들의 간접효과를 확인하면, 세 가지의 간접효과 중 비영리단체 신뢰와 비영리단체 긍정 태도가 모두 포함된 두 번째 간접효과만 매개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050과 .0298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수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또 다른 매개변수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를 매개하는 이중매개효과(.014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6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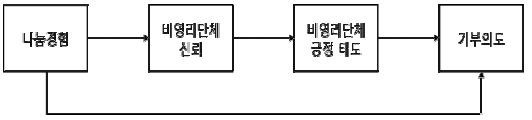

그림 1. 나눔경험과 기부의도의 관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긍정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 매개효과와 관련해서 나눔 경험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에, 비영리단체 신뢰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 태도는 기부 의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곧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및 긍정 태도를 증가시켜 기부 의도 향상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 시절 나눔 경험에서 느끼는 가치 인식 및 기부 효용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로 연결된다는 이원준[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며 개인의 가치가 사회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가지는 예측성[26]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주장한 전선영[2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나눔 경험의 직접효과와 관련해서 보면 나눔 경험은 매개효과와는 별도로 직접적으로 기부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모델링 효과[8]와 그로 인한 아이들의 나눔 행위에 대한 긍정적 가치 내재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친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기부 행동의 강화[9]를 주장하는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셋째, 기부의도에 대한 신뢰와 긍정태도의 매개효과는 나눔 경험이 기부 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 시절의 나눔 경험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나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 보다, 더 강하게 직접 기부 의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지향이 덜 확립된 아이들이 성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하는 경험들과 그로 인한 나눔에 대한 가치 인식은 성인이 된 이후의 행동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9]. 이와 같이 행위의 준거틀이 형성된 개인에게 기부의 간접적인 대상인 비영리단체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22]. 이러한 결과의 또 다른 원인으로 나눔 경험과 기부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또 다른 요인의 존재를 들 수 있다. 가령 태도 개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은 태도를 특정한 성향으로 보는 데 동의하지만, 그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갖춰져야 함을 주장한다[30]. 즉, 어떤 행위의 결정은 다양한 태도와 욕구, 상황적 조건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38], 기부의도 연결에 있어 중요한 상황적 조건에 해당하나, 본 연구의 초점을 벗어난 다른 변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의 효과와 그 중요성이다. 기존연구들에서 기부의 선행요인으로 보고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5][7][10][11]은 본 연구에서도 나눔경험과 기부의도로 이어지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간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이 향후 기부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및 긍정 태도를 매개하여 미치는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 중 기부의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요인은 어린 시절 나눔 경험임을 의미한다. 즉, 기부 활성화를 위해 어릴 때부터 나눔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기부사회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된 이후에 비영리단체에 기부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는 또한 나눔 경험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긍정태도를 거쳐서 기부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나눔 경험이 기부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나 긍정 태도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나눔경험이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긍정 태도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므로 향후 이를 보완하는 방향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서울 지역 2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으며 응답자의 약 48%가 20대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의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 및 연령의 분포가 고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린 시절 나눔 경험에 대해 보다 엄밀한 개념적 틀과 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 아름다운재단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문항들을 바탕으로 나눔 경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나눔 교육 등의 분류가 이뤄졌으나 차후 연구 시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기부 행동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각 연구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기부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나눔 경험을 강조하는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최경구, 김욱, “한국의 기부문화와 모금활동의 역사와 현황,” 계간 사회복지, Vol.159, pp.6-28, 2003.

[2] 박세경, 강혜규, 이준영, 정진경, 한동우, 박소현,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 심미승, “지역사회복지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 특성 분석: 광주 푸른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9, pp.1-11, 2016.

[4] 김주원, 김용준, “자선단체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Vol.37, No.3, pp.629-658, 2008.

[5] 정무성, 정호영, “사회복지시설의 신뢰와 몰입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한국비영리연구, Vol.5, No.2, pp.223-263, 2006.

[6] 강철희, 주명관,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0, No.1, pp.1-38, 2008.

[7] 강철희, 김유나, 조주희, “기부충성도를 지닌 인구집단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2, No.1, pp.205-234, 2010.

[8] P. O. Bjorhovde, “Teaching philanthropy to children: Why, how, and what.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Vol.2002, No.36, pp.7-20, 2002.

[9] R. Bekkers,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Relations with resources, personality, and political values,” Political Psychology, Vol.26, No.3, pp.439-454, 2005.

[10] 이원준,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1, pp.333-361, 2014.

[11] A. Sargeant and E. Jay, *Redefining Commitment,* Final Report, 2005.

[12] A. Sargeant and S. Lee, “Trus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in the united kingdom voluntary sector: Determinants of donor behavior," Psychology and Marketing, Vol.21, No.8, pp.613-635, 2004.

[13] 강철희,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3, pp.5-32, 2007.

[14]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15] D. Conrad and D. Hedin,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s,* 1989.

[16] N. Eisenberg and P. A. Miller,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1, No.1, pp.1-29, 1987.

[17] 홍은숙, 이화숙,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1, pp.1-17, 2015.

[18] 박성희, "친사회행동의 형성 기제와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Vol.12, No.2, pp.181-203, 1998.

[19] A. Ravald and C. Grönroos, "The value concept and relationship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30, No.2, pp.19-30, 1996.

[20] 김성호, 안명아, "비영리기관 (NPO) 의 진정성과 투명성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Vol.14, No.2, pp.3-22, 2015.

[21] 강철희,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Vol.2, No.2, pp.161-205, 2003.

[22] M. Rokeach, *Beliefs,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A theory of organization and change*, Jossey-Bass, 1968.

[23] H. Schuman and M. P. Johnson,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pp.161-207, 1976.

[24] G.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Basic books, 1979.

[25] I. Sweatt, *An Exploration of Psychologists' Social and Professional Advocacy Attitudes and Involvement,*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1999.

[26] V. Braithwaite, "Beyond Rokeach's Equality Freedom model: Two Dimensional values in a One Dimensional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0, No.4, pp.67-94, 1994.

[27] 전선영,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교육과 옹호 태도 및 전략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4, pp.35-65, 2005.

[28]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1975.

[29] D. Katz,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24, No.2, pp.163-204, 1960.

[30] 전병재, *인간과 사회,* 서울: 경문사, 2000.

[31] 류진석,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4, pp.79-101, 2004.

[32] 이경은, 강철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Vol.6, No.1, pp.77-109, 2007.

[33]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자료집,* 2006.

[34] 정우정, *이슈소유권, Ngo 명성 그리고 기부의도 간 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5] A. Sargeant and S. Lee, "Improving public trust in the voluntary sector: An empir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Vol.7, No.1, pp.68-83, 2002.

[36] C. T. Clotfelter, "The economics of giving. Giving better, giving smarter: Working paper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philanthropy and civic renewal," National Commission on Philanthropy and Civic Renewal, pp.31-55, 1997.

[37] J. C. Schneider, "Philanthropic styles in the United States: Toward a theory of regional

differenc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25, No.2, pp.190-210, 1996.
[38] E. Brown, "Making philanthropy work: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as predictors of household giving," 2001.
[39] A. F. Hayes, K. J. Preacher, and T. A. Myers, "Mediation and the estimation of indirect effects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Sourcebook for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Measures, and Analytical Techniques, pp.434-465, 2011.
[40] 이현응,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 연구, Vol.16, No.3, pp.225-249, 2014.
[41] D. Krech, R. S. Crutchfield, and E. L. Ballachey, *Individual in society,* A textbook of social psychology, 1962.

저 자 소 개

이 선 호(Seonho Lee) 준회원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2017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관심분야> : NGO역량, 노동정책

박 우 성(Woosung Park) 정회원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 1996년 10월 : 프랑스 HEC 대학 경영학(박사)
- 현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고령화시대 인적자원관리